

###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난치병 어린이 성금전달

미숙아로 태어나 '팔로씨사정' (심장질환의 일종)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마음 따뜻한 자비의 성금이 전해졌다.

전북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궁)은 5월 30일 고창군 신림면 이견민(1)군의 치료비로 100만원을 전달하고 "새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라"며 격려했다.

이군의 부친 이주행씨는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되니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건민이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복지관장 무궁 성님은 "이견민 군과 맺은 인연을 복지관의 관후처럼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보호사업을 통해 소외 받는 지역아동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갖고 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견민군에게 전달된 의료성금은 4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제8회 '난치병어린이돕기 3000배' 정진기도 대회에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노인복지센터 전 직원이 참여해 1배 100원씩 3000배 정진을 통해 모금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백양사 템플스테이 삼성 간부 650명 참가

국내 대기업 간부사원들이 기존 연수의 틀을 벗고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다.

장성 백양사주지 성의를 찾은 대기업 간부들은 삼성전자대표이사(이우연)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650여명이다. 대회 30여명씩 18차례에 걸쳐 백양사에서 참선, 108배, 발우공양 등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자기충전을 할 예정이다.

5월 30일 1차 입제식에서 성오스님은 "고찰에서 가슴에 담았던 업무 등을 털고 자연을 마음껏 담으면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문정 실장(백양사 주무실)은 "이번 사찰체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고, 자신을 낮추는 하심과 발우공양을 통한 겸손함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인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지역불교문화연구 시동 걸렸다”

### 5월 30일 호남불교문화연구소 개소

이웃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세가 약했던 호남에 처음으로 불교문화연구소가 생겼다.

5월 30일 전남대에서 열린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창립대회 및 창립기념 학술세미나에는 법인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행법 스님(광주불교교육원 학장), 수진 스님(담양 용화사 주지)을 비롯해 강정채 총장(전남대), 김민영 대표이사(부산저축은행)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을 맡은 이종표 교수는 "호남불교의 연구는 그 영역의 방대함과 내용적 특성상 전문가 그룹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

다"며 창립취지를 말했다. 이 교수는 "호남불교문화연구소는 호남 지역 최초의 불교연구소인 신평대리 종합학교 이외에 설립된 것은 전국 최초"라 설명했다.

그동안 호남불교문화연구는 중앙 학자의 답사나 문헌 고증에 의존했다. 지역학자의 연구도 단편적인 연구에 그치고 개인 역량의 한계로 큰 결실을 얻기 힘들었다.

이종표 교수는 "호남불교문화 연구 결과를 시민강좌·현장 답사 등으로 지역민과 함께 공유할 것이다. 연구소를 호남불교 연구의 허브로 만들어 호남불교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개소식을 기념해 열린 학술발표회에는 조명태 교수(신라대)가 '조선 후기 부휴문파의 동향과 사상'을, 이



5월 30일 전남대에서 열린 호남불교문화연구소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종표 교수.

경화 교수(전남대)가 '호남지역 마애불의 사적 해석'을, 한순미 교수(전남대)가 '호남지역 사찰 공간의 문화적 형상화'를, 배종민 교수(전남대)가 '월남사지 연구 경향에 대한 검토와 전망'을 발표했다.

한편 호남불교문화연구소는 소장 이종표 교수와 조윤호 교수(전남대 철학과)를 비롯해 지역 불자 교수들이 회원으로 참가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인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ck@naver.com

## “나는 누구인가”



금산사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참선을 하고 있다.

### 금산사 집중수행프로그램

일상생활에 지친 바쁜 현대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자신을 찾는 수련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선 나를 깨치다'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은 8월 23~26일(3박 4일), 27~31일(4박 5일) 사례선원에서 개최된다.

프로그램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자신의 수행의지를 다짐하는 예불, 스님으로부터 바른 호응법과 참선을

배우고 '참 나'를 밝히는 좌선, 하심을 일으키는 108배, 깨어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전하며 음식의 소중함과 평등한 공양을 의미하는 발우공양, 운력, 포행, 간경(금강경 독경), 염불 등의 집중 수행으로 진행된다.

금산사의 전통문화와 불교의 진수인 참선을 체험하고 어머니의 품속 같은 모악산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수행하는 이번 '선, 나를 깨치다'의 참가자격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KTX를 이용하는 참가자는 10% 할인이 가능하다. (063)548-4441 조동제 전북지사장

## “청소년 불자들이 많이 오세요”

### 7월 22일 광주파라미타청소년 캠프 개최

광주파라미타청소년 전국연합캠프 준비가 끝났다.

7월 22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열릴 제11회 파라미타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위해 전국 파라미타청소년 실무자 워크숍이 전남 화순에서 열렸다. 파라미타 전국 지도자들은 행사가 열릴 현장 견학과 행사 준비를 점검했다.

10회에 걸쳐 전국 청소년 불자들이 참여해 온 파라미타청소년 전국연합캠프는 제11회 캠프를 맞아 불교 청소년행사로써 처음 광주전남지역을 찾는다.

'푸른 마음 밝은 꿈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며 전통놀이체험, 유적답사, 물놀이 등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본부장 조제 스님(파라미타 광주지부장)은 "이번 파라미타

청소년연합캠프가 열악한 광주전남 청소년 포교의 획기적인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라미타 광주지부는 5월 29일~6월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열고 연꽃 컵등 만들기, 염주만들기 등을 선보여 참가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홍보부스를 준비한 이동배 교법사(파라미타 광주지부 사무국장, 정광교 교법사)는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연동축제를 통해 인기가 검증된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 전북지사: (063)910-5199

###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익산 마한 거사림회

## “불교 생활화와 이웃사랑 실천”

한적한 휴일 오전, 익산시 금마면 평범한 시골 마을의 한 밤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였다. 호미, 팽이 등 농기구를 들고 모인 사람들은 익산 마한 거사림(회장 박종근) 회원들로, 오늘은 마한 거사림 농장에 고구마, 가지, 배추 등의 씨를 뿌리는 날이다.

익산 마한 거사림은 2002년 1월 불교의 생활화와 이웃 사랑 실천을 목적으로 익산지역 거사들 50여명이 모여 창립해 독거노인을 돕기 시작했다.

마한 거사림 농장은 2006년부터

지는 못한다. 하지만 팽 율리며 몸소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면서 회원간 결속력을 다진 것은 가장 큰 결실"이라며 흠족해 했다. 마한 거사림 회원들은 요즘 조경수로 인기 있는 회양목도 키운다.

마한 거사림은 봉사활동도 제 일이다. 2005년 진안 수해, 2007년 익산 태풍 피해, 12월 태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 등에 발 벗고 나섰다. 익산 보석축제, 마라톤 대회 등 지역행사에서는 도우미로도 활동했다.

익산에서 푸른 조끼 차림의



### 더 많은 후원위해 수익사업 시작 몸소 맘들리며 직접 농산물 재배

터 선천성 기형과 성장장애를 앓는 어린이 치료비를 후원하면서 시작했다. 회원들은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기로 중지를 모았고, 박종근 회장은 흔쾌히 농지 600평을 무상 임대했다. 여기에 거사림 회원들이 노동력을 보태며 마한 거사림 회원들의 농사는 시작했다.

마한 거사림 회원들은 봄에는 고구마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배추와 무를 심는다. 수확기마다 현지 장터를 열어 직접 판매까지 한다.

거사림 회원들은 겨울에도 쉬지 않는다. 손수 메주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겨울에만 메주를 통해 200여만원을 마련했다.

박 회장은 "농사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기대만큼의 수익을 얻

'마한 거사림' 회원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마한 거사림은 '익산불교인의 밤' 행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마한 거사림 회원들은 신행활동도 뒤지지 않는다. 년 2회의 강도 높은 수련회를 통해 인근 지역 사찰을 순례하며 법회를 갖는다. 또 천천마한클럽(1000명이 1000원씩을 모아 후원하는 비영리 법인)을 통해 불자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한다.

익산 불교의 동량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마한 거사림 회원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박종근 회장은 "마한 거사림 회원들의 소망은 익산 마한사지가 속히 복원되고 옛 백제 불교의 명성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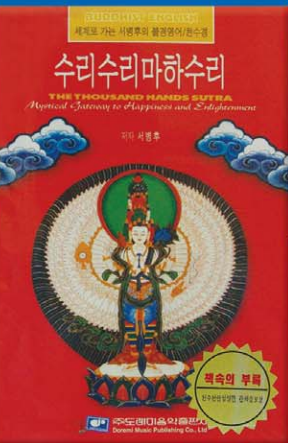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 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래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 용봉사 동양 최초 “천년 옥와불 점안식” 대법회

7년전 부처님의 선몽으로 크기를 가능하게 힘든 취옥석을 발견하여, '대중과 함께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겠다'는 서원으로 불사를 진행하여 오늘에야 원만 회향하였고 마침내 길이 12m 높이 3m의 동양 최초 옥와불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사를 위해 무무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점안법회에 참석하시어 옥와불 부처님의 가피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금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용봉사 주지 혜명 합장

일시 : 불기 2552년 6월 15일(일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용봉사 옥외불 보전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40번지)  
문의 : (055)649-5959 / 010-9244-3358



동양 최초 옥와불 기도도량 용 봉사